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들, 사제들, 보제들, 수도자들과 모든 충실한 자녀들에게 보내는
모스크바 및 전 루시 총대주교 키릴의 성탄절 서신

주님 안에서 경애하는 주교님들, 존경하는 사제님들과 보제님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수사님들과 수녀님들, 친애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모두께 그리스도 성탄 대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찬란한 밤, '이제 백성들이 고대해온 세상의 구원이신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므로'(성탄절 전야 석후과 카논 중) 모든 피조물이 기뻐합니다. 낙원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뒤 자신의 조물주와의 관계를 상실한 인류는 매일 하느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바로 곁에서 들으며, 그분을 대면하여 즉시 응답을 받을 가능성을 누리고, 주님께서 바로 곁에 함께 계시므로 자기 자신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쁜 지를 망각하였으나, 오랜 세월 동안 구세주께서 오시기를 염원하였습니다.

안전하게 보호 받고 있으며 안정을 누리고 있다는 바로 이 느낌은 오늘날 치명적인 역병이 우리 생활에 변화를 가져온 탓에 무언가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 당장 내일 어떻게 될 지 확신할 수 없어 계속 우려 속에 긴장하게 된 이 시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존재의 연약함을 예리하게 감지하였고, 매일 새 하루를 하느님의 위대한 선물로 여겨야 함을 깨달았으며, 강요된 독거 격리가 얼마나 무거운 부담이고 친지들 및 이웃들과 정기적으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 이해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유 속에 누우신 아기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극히 정결하신 어머니 그리고 의인 성 요셉 약혼자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만이 다양한 시험에서 우리를 굳세게 강화하고, 우리 마음에서 공포를 몰아내며, 선행을 행할 능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실로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께서도 당신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이 때 낫선 고을과 광야, 외양간 동굴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빈궁한 동굴이 성모님께는 '화사한 궁궐'(성탄절 전야 찬양송 중)로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이 하느님이신 아드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고, 그러므로 지극히 정결하신 동정녀께서는 불편함도, 동굴의 초라함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감사와 새로 탄생하신 아기에 대한 애정은 성모님이 그 분에게 주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상황에서 하느님의 선한 섭리를 보는 데에 어려움도 마다치 않으시게 하였습니다. 하느님에 의하여 주어진 시험을 받아 들이는 우리의 자세와 성모님의 이 자세는 이토록 구별되는데, 예를 들어 격리기간 많은 이들은 자기 집조차 마치 감옥처럼 여기었고, 상심에 빠져 모든 것을 암울하게 보았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해처럼 빛나는 종들인 우리는 오늘 창조주 곁에 사람들과 동물들 그리고 천사 등 모든 피조물들이 둘러싼 구세주의 구유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이고 그리스도 주위의 군상들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에서 공포와 불신, 근심 그리고 낙담의 족쇄를 던져 버리고, 죄로 얼룩진 지상에 오시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이들을 모두' 당신께 부르셔서 '안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마태오 11:28 참조) 하느님 아드님의 음성을 경청합시다. 실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상실한 낙원의 지복이 실제로 회복되고, 더 나아가 인간이 불가해하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주님과 일치될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하늘의 임금님'(대축일 스티키라 중)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에 보답하여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 자선행위를 실천하며, 신앙을 강화하고 하느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바람을 품으며, 아버지이신 그분의 손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할 뿐 아니라 그분에 대한 굳건한 소망과 신뢰로써 온갖 어려움을 극복할 준비를 하는 등 자신의 행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친애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거듭 그리스도 성탄절을 축하드립니다. 성 대 레오 로마교황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이 기쁨에 동참하는 데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니 만민이 다 같이 기뻐해야 할 하나의 공통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 당신이 거룩한 사람이라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월계관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초대 받았기 때문입니다.”(제 1 성탄절 설교 중)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께 정신적, 육체적 강녕과 쇠하지 않는 기쁨 그리고 영적 원기를 내려 주시고, 여러분께서 행하시는 노고와 구원을 향한 앞으로의 여정에서 위의 것들을 강화시켜 주시리이다. 아멘

모스크바 및 전 루시 총대주교 키릴

2021/2022 년

그리스도 성탄 대축일 모스크바